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수상한 선글라스

글 고수산나 | 그림 박이름

스폰북



수상한 선글라스

- 글: 고수산나
- 출판사: 스펀북
- 분량: 76쪽
- 주제어: 분리수거, 환경, 지구, 재활용
- 교과 연계: [국어 3-1] 8. 의견이 있어요
[국어 3-2] 2.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요
[도덕 3학년] 4. 아껴 쓰는 우리
[도덕 3학년]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 그림: 박이름
- 정가: 11,000원
- 대상: 초등 3학년

책 소개

줄넘기를 잃어버린 한솔이. 교실 맨 뒤에 있는 분실물 바구니를 기웃거리려 보아도 줄넘기는 없지 뭐예요. 마침 공원에서 알뜰 장터가 열린다고 해서 쌍둥이 한솔이와 은솔이는 줄넘기를 구할 수 있으리라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그곳에서 만난 멋쟁이 콧수염 아저씨가 빌려주신 선글라스 두 개! 그런데, 이건 그냥 선글라스가 아니예요. 과연 한솔이와 은솔이는 이 수상한 선글라스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주요 독후 활동

수상한 선글라스

책 읽기 전 ① 표지 살펴보기 ② 책 속 어휘 익히기

책 속으로 ① 이야기의 주요 장면
② 경험을 나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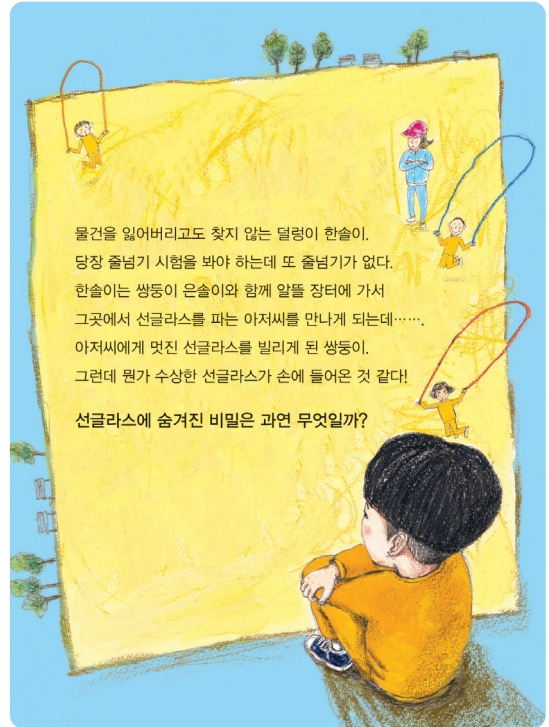
책을 읽고 나서 ① 아나바다 운동 ②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독서 전

책 읽기 전 ① 표지 살펴보기

- 앞표지의 제목과 그림, 뒤표지의 글을 읽어 보고, 《수상한 선글라스》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아요.







독서 전

(1~2) 책에 나오는 어휘와 뜻을 알아보세요.

1 낱말과 뜻을 알맞게 줄을 연결해 보세요.

옥신각신하다

● 사람의 성질이나 행동, 생김새 따위가 빈틈이 없이 꽤 단단하고 굳세다.

쓸모없다

● 물체가 자주 이쪽저쪽으로 기울어지며 흔들리다.

야무지다

● 서로 옳으니 그러니 하며 다투다.

가우뚱거리다

● 발뒤꿈치를 든 발.

까치발

● 쓸 만한 가치가 없다.



2 [보기]에 있는 꾸며 주는 말을 사용해 문장을 채워 보세요.

[보기]

뿌연 곰곰이 이리저리 바바꿈히 슬금슬금

은솔이는 안방을 () 내다보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뛰느라 생긴 () 먼지바람이 한솔이 쪽으로 불어 왔습니다.

은솔이는 선글라스를 쓰고 고개를 () 돌려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사람들 틈에 숨어서 () 움직였습니다.

은솔이와 한솔이는 낮에 있었던 일을 () 생각해 보았습니다.



독서 중

책 속으로 ① 이야기의 주요 장면

(1~2)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10쪽] “여자애들은 무슨 가방이 그렇게 많아? 은솔이 네 방에 가방 많이 있잖아.”
 한솔이의 말에 은솔이는 짜증을 냈습니다.
 “나는 너처럼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쌓여 있지. 너는 우산, 가방, 색연필 같은 거 만날 잃어버리면서 뭘 그래.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잖아. 그리고 나는 멧쟁이라서 가방이 많이 필요한 거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짜증이야. 엄마가 안 사 준다고 하는 걸.”
 한솔이는 은솔이가 가방을 못 산 화풀이를 자신한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몰라.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새 가방을 못 사잖아. 꼭 갖고 싶은데.”

1 은솔이와 한솔이는 각자 다른 이유로 엄마한테 자꾸 새 물건을 사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위 글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2 새 물건을 사달라고 하는 은솔이와 한솔이를 보고 든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아요.





독서 중

책 속으로 @경험을 나눴어요

《수상한 선글라스》에서 은솔이와 한솔이는 선글라스를 통해 한 물건들 속에 담긴 추억들을 봅니다.

[38쪽] 둘은 토끼 인형에 집중해서 선글라스가 보여 주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토끼 인형을 선물한 이모와 은솔이가 보였습니다.

"이모, 고마워. 정말 갖고 싶었던 인형이었어. 나는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이 인형을 가지고 있을 거야. 세상에서 제일 좋아."

양 갈래로 머리를 땀은 어린 은솔이는 토끼 인형을 얼굴에 비비며 좋아했습니다. 잘 때도 안고 자고 밥을 먹을 때도 토끼 인형을 옆에 앉혀 두었습니다.

[46쪽] 얼마 뒤, 외갓집에 놀러 온 손자는 할머니의 줄넘기 줄로 줄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옛날 자신의 딸을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외손자에게 줄넘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경을 쓴 남자아이는 줄넘기를 하며 할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줄넘기가 돌아갈 때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추억의 물건이 있나요? 있다면 그 물건을 그려 보고 어떤 추억이 있는지 소개해 보아요.

어떻게 생겼나요?

어떤 추억이 있나요?





독서 후

책을 읽고 나서 ① 아나바다 운동

1 물건을 알뜰하게 쓰자는 의미로 시작된 '아나바다' 운동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아나바다는 어떤 말을 줄인 것일까요? 빈칸을 채워 보세요.

아				나			
바				다			

2 알뜰 장터는 이 '아나바다'를 잘 실천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뜰 장터의 상인이 된다면 어떤 물건을 내놓고 싶나요?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독서 후

책을 읽고 나서 ②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64쪽] 한솔이와 은솔이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줄넘기를 찾았습니다. 아까 신발장에 던져 버렸던 줄넘기를 꺼냈습니다. (중략)

둘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줄넘기를 꾸몄습니다. 줄넘기 줄 끝에 노란색 술을 달고 줄넘기를 모아서 묶을 끈도 만들었습니다.

“와, 괜찮은데. 새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멋져 보여.”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줄넘기로 만들었잖아.”

새로 변신한 줄넘기를 보며 은솔이와 한솔이는 기뻐했습니다.

버려야 할 것 같은 물건들도 다르게 보면 새로운 활용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재활용’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보고,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